지역 소식통

김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김제시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우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내 선정된 표본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원이 선정된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의 전자조사표를 이용, 일대일 면접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으로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다.

조사된 통계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과정을 거쳐 2025년 2월 중 건강 통계집으로 발간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만가리 황토 맨발걷기 선포식' 성황

완주군이 지난 11일 제59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만가리(萬家里) 황토 맨발걷기 선포식'을 성황리에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서남용 완주군의장,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재연 보건소장의 황토 맨발걷기 선언문 낭독을 필두로 내외빈 및 관객 모두가 참여해 '만가리 황토 맨발 걷기 좋은 완주' 피켓을 들고 선포식을 축하했다.

선포식 이후 진행된 '만가리 황토 맨발걷기 체험'에서는 박동창 회장과 SNS로 사전 접수한 참여자들 100여 명이 약 1km 코스를 함께 걸었다.

완주군은 청사 인근에 면적 2만 3,000㎡ 규모의 만가리 황톳길을 조성했으며, 이곳이 황톳길 맨발 걷기 전국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민선8기 후반기 업무 속도낸다

유희태 완주군수, 군정 주요사업 점검 및 공약 성과분석 추진

민선 8기 반환점을 한 달여 앞두고 유희태 완주군수가 군정 주요사업을 중간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군정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을 실국소장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면밀히 실시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군수는 전북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민선8기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민선 8기 반환점을 한 달여 앞두고 유희태 완주군수는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군정주요사업을 중간점검했다.

또한, 유 군수는 이달 말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유 군수는 "부처 단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가예산 확보가 불가하다"며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타당성과 설득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역점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계약, 지역상품 우선구매,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시행하는 농촌일손돕기에도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실태 현장점검

농가주 · 근로자 준수사항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올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95명과 농가주 53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주간 근로실태 및 영농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어 통역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며 법무부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인권침해, △임금 지급 여부, △의사소통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 292명 중 무단이탈자가 단 한명도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 및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이탈방지 사전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동김제농협과 공덕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 20명씩, 총 4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고용 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동김제농협과 공덕농협에 신청을 하고 농협에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24 공유재산 심의위원 신규 위촉식

완주군이 13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2024년도 완주군 공유재산 심의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기존 9명(당연직 4인, 위촉직 5인)에서 14명(당연직 5인, 위촉직 9인)으로 증원했다.

위원 증액은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심의회 진행을 위해 결정됐다.

신규 위촉된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김은중 부위원장, 이진아, 박상민, 임창희, 김재곤, 심상동, 조기문, 정남경, 정혜인 위원이다. 변호사, 회계사, 평가사, 세무사 등 각 전문직군들로 구성된 완주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완주군 재산의 취득·매각·감면·용도폐지 등 공유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완주군은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완주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삼봉지구 서울행 버스 운행

군, 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 운행… 무인승차권 발매기 설치

완주 삼봉지구에서 서울 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가 운행된다.

13일 완주군은 오는 6월부터 서울 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가 완주 삼봉지구 노선을 추가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입주민의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북도청과 시외버스 운수업체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삼례터미널(우석대)에서 출발하는 서울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에 삼봉지구를 추가하고 현대자동차 출고장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삼봉지구 시외버스 승강장은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삼봉로 완주소방서 시내버스 승강장)과 겸해 사용할 계획이다. 승강장에는 무인승차권 발매기도 설치됐다. 무인 승차권 발매기는 카드환불형(현금결제 불가)으로 IC카드(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가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둔산공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개량해 현대화하고, 이곳에도 무인승차권 발매기를 설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교통복지 1번지로 시내버스 공영화 추진, 부름부릉 운행 등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축제위 출범, 축제 경쟁력 강화

완주군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축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축제위원회는 군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

조영식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 언론사, 학계, 축제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축제위원회는 군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완주군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전년도 7개 주요 축제의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지역축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완주군 축제에는 총 23만 3,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15억 1,8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